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최근 코로나 대란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예전에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하던 일출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일조차 편안하지 않다. 교회에서 예배 보는 일도 쉽지 않고 대단위 회의나 축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은 외국 여행이다. 가끔 여행 가방을 들고 인천 영종도 공항을 거쳐 외국 바람을 쐬고 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고 지루한 일상을 새롭게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주아주 막혀 버린 것이다.

나는 외부 사람들이 찾아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시외버스 시간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매표구 앞에 걸려있는 시간표를 보면 검은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많다. 모두 버스 노선을 줄인 증거다. 아예 인천 공항으로 가는 버스표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공주에서 인천공항으로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또 그만큼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다.

다시 좋은 세월이 오면

그러니 관광업이든 숙박업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는가.

이제는 누구나의 꿈일 것이다. 하루속히 코로나 대란이 평정돼 예전처럼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외국 여행 한 번쯤 다녀오는 것 말이다. 만약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겨 다시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스페인을 들고 싶다. 그냥 멀리서 생각할 때는 투우의 나라, 집시의 나라, 피카소의 고국 정도로만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스페인. 한때 정작 가보니 스페인어야말로 자연이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다. 햇빛이 다르고 바람이 달랐다. 가슴이 확 열리는 느낌, 자유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톨레도가 가장 좋았다. 내가 톨레도를 찾은 것은 오후 시간 한나절. 톨레도의 골목과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면 기분이 좋았다. 발길이 허송허송 허공을 딛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혹은 미국 세도나에서 느꼈던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저녁 식사 시간. 여행사 직원이 준비한 식단이 그럴듯했다. 포도주와 애저꼬치 노 요리가 나왔다. 애저는 애기돼지를 이르는 말이고 꼬치노는 돼지 통구이의 스페인 말이라한다. 이른바 새끼돼지 바비큐. 돼지 다리 하나씩을 주었다. 조그맣고 먹음직스러웠으나 나는 차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애기돼지를 죽여 바비큐로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 나는 내 차례로 온 바비큐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주고 대중 요기를 한 다음, 음식점 밖으로 나와 한동안 서성였다. 골목길이 아주 좁았다.

그 길을 조그만 사각형 자동차들이 요리조리 빠져 다녔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길가에 만들어 놓은 턱에 올라가 자동차를 피했다. 자동차들도 조심조심 지나갔다. 그럴 뿐더러 거리의 불빛이 매우 흐렸다. 어른어른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더욱 상상적이고 환상적이었다. 어디선가 문득 카르멘의 후예인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불쑥 나타나 나에게 웃어 줄 것만 같았다. 나는 한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돌맹이처럼 멍하니 서서 울먹이고 있었다. 울먹임. 까닭도 없는 울먹임. 울먹임 그 자체의 울먹임.

그런 애상(哀想)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골목길을 저만큼 걸어 낯선 가게를 하나 발견하고 불쑥 들어가 플라멩고 춤을 추는 집시 아가씨 인형을 두 개 사기도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 안 될 것 같은 목마름이 그때 있었다.

아, 다시금 좋은 세월이 오면 스페인이란 나라에 한번 더 가 보고 싶다.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도 좋고 프라도 미술관도 좋고, 바르셀로나 문주의 언덕도 좋고 가우디의 성가축성당은 더욱 좋았지만, 그 어디보다도 톨레도에 꼭 한 번만 더 가 보고 싶다. 문주의 언덕에서는 황영조 선수의 조각상을 보기도 했었지!

딱 하루만 톨레도의 골목길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서성이고 싶다. 낯선 가게, 낯선 음식 앞을 기웃거리며 걷고 싶다. 그런 날이 과연 오기가 할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닐 것이다. 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날이 계속되다 보니 내가 별별 생각을 다 해 본다.

종교칼럼

감사의 법칙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가을이 깊어지니 자연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한다. 지구촌은 코로나 여진으로 여전히 진행되는 위험 앞에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자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 풍요로운 곡식과 과실을 내놓는다. 기독교에서는 한 해 동안 맘을 흘려 얻어지는 열매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가 되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청교도의 미국 이주와 더불어 시작된다. 1620년 12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아주 추운 지역인 프리머스 땅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해 겨울에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굶주림, 질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 속에서 거의 과반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되지만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개척 의지를 불태우며 정착의 꿈을 펼쳐 나간다. 봄이 되자 청교도들은 밭을 일구어 유럽에서 가지

고 온 밀과 완두콩, 호박 등을 심어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였으나 인디언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다 짓밟아 버렸다. 청교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과기도를 하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은 그치지 않아 지쳐 있었고 질병도 여전했으며 인디언들의 공격 또한 멈추지 않았다.

이때 한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당연한 고통과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꼭 달리하여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형제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본토 유럽을 떠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곳이며, 눈을 들어 보이는 모든 광대한 대지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땅이다.' '자유와 대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농부의 연설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큰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감사를 찾아내고, 미래에 주어질 감사도 찾아내어 '먼저 감사'라는 축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먼저 감사' 하면 그 감사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그들은 감사 주간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감

사 주간이 끝나고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원수로 지내던 인디언 부족 추장이 찾아와 상호 협력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밀과 옥수수 등 작물 경작법을 전수해 주었다. 그 덕분에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 아주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들이고 들에 나가 칠면조를 잡아 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했다. 인디언들은 사슴을 잡아 와 함께 음식을 요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춤과 노래를 통해 기쁨의 축제를 만끽했다. 그것이 미국에서 드린 최초의 청교도 추수 감사 예배였던 것이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8)고 교훈한다. 감사의 법칙이 작동하면 원수의 마음이 변화되어 친구가 되며 흉년과 흑한의 환경을 이겨내어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감사는 결코 풍성한 수확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동료들이 죽어가고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에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거리를 찾아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기적처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생각의 전환을 제안해 본다.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먼저 바꾸자. 이제 우리들은 '먼저 감사'를 찾아 진심으로 매사에 감사하여 기적처럼 움직이는 감사의 법칙을 작동시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기고

꽃씨를 받으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봄꽃은 화려하다. 겨울 눈보라가 거셀수록 꽃의 빛깔은 더 선명해진다. 겨울 동백은 푸른 잎 사이에 더 붉고 더욱 선명하다. 비바람을 견뎌낸 매화는 백지장보다 더 희고 그 향기는 훨씬 진하다. 누이의 불을 담은 연분홍 살구나무도 온 동네가 불이 난 것인 양 화사하게 꽃뿔을 피우다가 흰 눈처럼 마당을 가득 커버이 덮고야 진다.

꽃 중에도 지독한 오기가 있는 꽃들이 있다면 봄꽃일 것이다. 두드리고 뿔수록 붉은 망울을 내보이며 눈을 부릅뜨고 독기를 내뿜는 것 같다. 진한 향기를 멀리까지 내보내 제 순백의 의지를 밝히고 결기를 세위 향의 하는 것 같다. 눈 속에서도 섧노란 빛을 내세우는 복수초는 이름조차 섬뜩하다. 겨우내 진 빛이라도 받으려는지 핏빛 눈을 치켜뜨거나 장백한 얼굴로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하다. 그래서 눈보라가 매서운 겨울은 더욱 봄꽃 볼 생각으로 가슴이 들뜬다.

아쉽게도 봄꽃은 그 꽃이 화려해서 감히 꽃씨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마법을 건다. 아쩨 그 꽃씨조

차 꽃에 섞여 바람에 날려 멀리 가 버리거나 나무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오기를 부리는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봄꽃은 이렇저러 꽃씨조차 받기 힘들다.

가을꽃은 순하다. 여름 햇살이나 천둥 번개에 어지간히 힘드 들었겠지만 다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아 각이 선 잎들도 순해지고 꽃뿔한 줄기도 부드럽워진다. 그래서 가을꽃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봄꽃은 꽃씨를 받을 겨를이 없는, 지기가 무섭게 곧장 열매를 맺는 꽃들이다. 봄꽃이 결실을 보기 위해 벌과 나비를 부르는 꽃이라면 가을꽃은 꽃 자체가 목적이다. 코스모스는 바람 따라 하늘거리고, 국화는 눈두렁에서조차 지조와 우아함을 잊지 않는다. 백일홍은 가을 한 철 변함없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구절초는 낮게 청초하다.

낮게 고개를 숙이고 꽃씨를 받는다. 가을을 받는다. 꽃은 온몸으로 꽃씨를 만들거나 가을 햇볕을 모아 꽃씨에 저장했는지 꽃씨는 작지만 탄력하다. 여름과 가을 천근 무게를 두 손을 펼쳐 받는다. 순결한 초목의 아이를 받는다. 자연의 정기를 받는다. 우주의 생명을 받는다.

"가을 뜨락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디/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머뭇 세월을 살아오신 / 반백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여/ 나는/ 바쁘게 바쁘게 /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 얻은 것 없이 /꺼멧게 때만 묻어 돌아왔는데 /저리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당신은 마련하셨네 /가을 뜨락에 /젊음이 역사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엄치없다."

꽃씨를 받다가 문득 허영자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꽃씨를 받다가 여인이 되어본다. 꽃씨를 받다가 희망을 두 손으로 받는다. 꽃씨를 받다가 나를 돌아본다. 꽃씨를 받다가 반성문을 써 본다.

난 누구를 꽃처럼 대하고 살았던가. 나는 꽃이 된 적이 있던가. 아니 난 씨앗을 만든 적이 있던가. 내 몸을 불살라 내일의 희망을 만든 적이 있던가. 꽃처럼 피었다가 꽃같이 질 수 있는가.

가을꽃은 화려하게 휘날리는 봄꽃과 달리 조용히 진다. 차가운 서리에 맞서 온몸을 움츠려 씨앗을 껴안고 미라처럼 말라비늘어진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다. 꽃은 제 온몸을 녹여내어 꽃씨를 만든다. 소멸하면 새끼가 씨앗을 사랑한 꽃, 꽃씨를 받으며 꽃이 전해주는 절절한 애절함에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모양이다.

꽃씨를 받는다. 지금까지 핀 꽃에 찬사를 보냈지만, 꽃을 심는 사람의 마음도, 그 꽃이 비와 천둥을 이겨내며 피기까지 관심을 보낸 것도 아니다.

그냥 꽃만 보고 꽃에만 인사를 했던 것 같다. 고향 집 어머니가 주는 대로 받기만 했지 정녕 고고자 한철 내내 힘들었던 노고는 이해하지 못했던 나처럼, 나는 누구에게 한번 꽃이었던가. 난 꽃처럼 온몸을 붉게 불살라 누구를 기쁘게 해본 적이 있던가. 누구에게 진한 향기로 머문 적이 있던가. 꽃씨를 받는다. 꽃씨에서 두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꽃씨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꽃씨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꽃씨를 받으며 꽃씨에서 기다림을, 희망을, 사랑을 읽는다.

社說

달빛내륙철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 추진을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영호남의 현안 사업이다. 하지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포럼'을 최근 국회에서 연 것도 이번만큼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는 의지 때문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고속전철화 해 영호남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1~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검토 사업에 그쳤다. 4차 철도망 계획은 내년 6월에 확정되는데 건설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해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다.

달빛내륙철도의 건설 명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

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동서축 철도망 연결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영호남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건설 필요성은 충분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흔히 경제성 논리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잣대를 들이댄다. 당연한 일이지만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투자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내건 이유도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방점을 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 간 철도 분담률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축에 비해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축은 훨씬 뒤처져 있다. 양극화된 이런 구조를 바로잡아 낙후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포럼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동서내륙철도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동서 화합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빠른 화답을 기대한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살 길 막막한 수재민들

지난 8월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수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100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의 복구 지원과 대책은 물론 흉수 원인 규명마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13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700ha가 물에 잠겼으며 소 2000마리도 물에 떠내려갔다. 그 여파로 주민 50가구는 현재까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130여 명은 공동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살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집과 축사를 수리하는 등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 지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책정한

집 수리비 200만 원으로는 무너진 집을 복구할 수 없으며 송아지 구입비 7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넘는 송아지를 어떻게 사느냐"고 하소연한다. 급기야 주민들은 최근 월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수해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 착수는 내년으로 미뤄졌고 이에 따른 보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가 구례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음에도 사정이 이렇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해로 신음하는 구례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문에서 편집기자의 제목 뽑기는 시인이 시를 쓰는 작업과 비슷하다. 긴 문장의 기사를 최대한 압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때로는 은유와 대구(對句)도 필요하다. 감성의 시각화로 시처럼 여운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래서 편집기자는 손발력은 물론 뉴스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독자는 제목을 통해 기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언어유희와 조탁

무릎을 치게 하는 언어의 조탁(駢琢)이나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언어유희는 특히 스포츠면 제목에서 꽃을 피운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등에서 편집기자들이 차려 놓은 언어의 성찬을 음미해 보자.

신문에서 편집기자의 제목 뽑기는 시인이 시를 쓰는 작업과 비슷하다. 긴 문장의 기사를 최대한 압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때로는 은유와 대구(對句)도 필요하다. 감성의 시각화로 시처럼 여운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래서 편집기자는 손발력은 물론 뉴스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독자는 제목을 통해 기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에서 박찬호가 빛나는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헤드라인은 '다저스 파크(PARK)에는 즐거움이 있다'였다. 류현진이 완투승을 하면 '일류', 부진하다 다시 잘 던지면 'Ryu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선수들의 성씨를 활용한 재치 있는 제목들이다.

PGA에서 타이거 우즈가 2000년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자 그랜드 슬램을 넘어 '타이거 슬램'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도 편집기자다. 2013년 LPGA 슈퍼스타 박인비가 메이저를 휩쓸 때 '인비 슬램 GO'라는 제목을 썼다. 최경주가 PGA 8승을 거두는 사이엔 이름 K.J.CHOI에 맞춰 '굿 초이스'라는 제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은 맨유의 '센트럴 파크'였다, 성실한 플레이로 골을 넣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제목도 나왔다. 손흥민의 대활약에는 '손세이셔널' '손하트' '황금손' '슈퍼손데이' 등 플레이만큼 화려한 제목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 U-20 월드컵축구에서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했을 때엔 '2강 in'이라는 제목이 등장했다. 이 광주일보 1면을 장식했다. 결승(2강) 진출(in)을 이강인의 이름과 연결한 언어의 조탁이다. 그러나 불세출의 뛰어난 선수라 해도 부진이 계속되면 덩달아 편집기자들의 언어유희도 멈춘다.

코로나19 대응행에도 축구 A매치가 잇따라 열리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도 계속된다. 좋은 시가 마음을 정화하듯 광주일보에 실린 제목 한 줄이 독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재만 편집1부장 jkyou@

Table with 2 columns: Left column contains '光州日報'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phone, fax, website). Right column contains 'The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phone, fax, websit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